

이긴자 구세주는 전지전능한 존재입니다

오늘날 구세주의 몸에서 이슬성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슬성신은 마귀를 지리멸렬 시킬 수 있는 권능의 영(靈)입니다. 이슬성신은 불경의 감로이며 격암유록의 해인입니다. 불경에는 '감로를 먹으면 죽지 않고 늙지도 않는다'고 했으며 감로를 내리는 자를 생미륵불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모세는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모세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이슬성신을 구세주가 내려 줄 것을 내다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기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슬과 같은 만나를 내렸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려면 이슬과 같은 만나를 내려야 하는 것인데 예수는 이슬과 같은 만나를 못 내렸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5절에는 '이슬성신을 내리는 이긴자가 백합화같이 핀다'고 했는데 백합화는 구세주를 말합니다. '구주는 산곡의 백합 명량한 새벽별 / 만인 위에 뛰어나시는 주(主)일세'의 찬송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주' 곧 구세주는 산곡의 백합이면서 또 명량한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새벽별이 어떻게 구세주를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구세주인 이 사람이 태어난 시각이 새벽이며 태어난 날짜가 별수의 날인 28일이므로 새벽별이 된 것입니다. 새벽별은 밝은 별이고 이 사람의 이름 또한 밝은 희(熙)에 별 성(星)이 된 것입니다. 구세주는 이름까지 누구든지 인정을 하도록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성은 무리 조(曹)로써 그 획수는 완성을 나타내는 열획입니다.

하나님을 심자로 표시하고 있듯이 구세주는 10획수의 성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10획의 한자 성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민족경전 격암유록 초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鄭氏鄭氏何鄭氏 정씨정씨하정씨
滿七加三是鄭氏 만칠가삼시정씨
何姓不知無裔後 하성부지무예후
一字縱橫眞鄭氏 일자縱橫眞鄭氏

이를 풀이하면 '정씨, 정씨는 어떤 정씨인가 칠 더하기 3을 한 것이 진짜 정씨다'이며 이를 더 자세히 풀이하면 '정도령은 어떤 성씨냐, 열획수를 가진 성으로 정도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격암유록을 본 사람은 이 사람이 정도령이라는 사실을 누구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승리제단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역사를 하는 것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역사를 흥내낸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분신의 몸으로 여러분들을 일일이 챙기고 여러분들 집집마다 가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돌봐 주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 주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분신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집마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걷기도 하고 여러분들 옆에 이 사람의 분신이 눕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간혹 그렇게 보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마귀의 종입니다. 인간은 엄밀히 말하면 모두가 마귀새끼인데 승리제단에서는 이슬성신을 내려서 마귀새끼의 탈을 벗겨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시간만 있으면 또 마귀새끼로 돌변합니다. 그런 가운데 구세주가 온 세상의 인류를 한사람 한사람 이끌고 가면서 마귀의 탈을 벗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세주의 품안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세주 하나님의 자녀이니 구세주는 인류의 친엄마입니다

구세주는 온 세상 인류의 어버이입니다. 친엄마라는 것을 못 느끼는 사람은 마귀새끼입니다. 마귀새끼이기 때문에 친엄마라는 걸 못느끼지만 반면에 친엄마라고 느끼는 사람은 바로 구세주의 가지입니다

구세주는 1초 동안에 이 우주를 수 억만 바퀴를 돌아다닙니다. 구세주란 그런 존재입니다. 우주를 수 억만 바퀴를 돌아다니기에 우주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주의 어떤 구석에 숨어 있어도 모조리 잡아 죽일 수 있는 권능이 구세주에게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세주는 보통 존재가 아니고 정말로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세주의 실체를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구세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기



구세주 조희성님

전능한 존재입니다. 구세주는 십년 앞도 내다보고 백년 앞도 내다보고 천년만년 앞도 내다보는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니 이 역사를 하는 것이지 내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 역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다만 구세주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마귀를 속입니다. 마귀를 속여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못 속이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으므로 마귀를 감쪽같이 속이며 마귀의 뒷통수를 쳐서 완전히 멸하는

것입니다.

구세주인 이 사람은 누가 음란죄를 짓고 오면 다 압니다. 음란죄를 지으면 뱀뱀새가 전해져 오기 때문에 다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음란죄를 지은 사람을 여러번 지적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음란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욕고를 치르고 있을 때 멀리서 음란세력이 오는 것을 느끼고 교도소에 있는 간부를 통해서 전화로 연락을 하라고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해서 음란죄를 짓지 않도록 교정해 준 결과 그다음부터 음란 세력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안오던 음란세력이 다시 오기에 또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활과 여러분의 움직임을 일거수일투족까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모르는 척하는 것 뿐입니다. 이제 다시 죄만 안 지으면 용서해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죄는 몰라도 음란죄는 짓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음란죄 짓는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쓴 결과 수개월이나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씩 걸려가면서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면 다른 많은 사람의 죄를 해결할 기회가 없

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고 집착할 수가 없으므로 그냥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란죄만은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음란죄는 죄 중에서도 가장 해결이 안되는 죄입니다.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음란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격암유록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유리집같이 들여다 본다'고 했습니다. 유리집 안에는 무엇이 있던 다 보입니다. 음란죄를 짓는 것도 유리집 같이 보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보이는 사람앞에 속이려고 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유리집입니다. 구세주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을 뿐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격암유록 말운론(末運論)편에는 사인불인천신강(似人不人天神降) 즉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천신 즉 하나님의 신이 내려오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닌 구세주는 죄인을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전지전능한 존재입니다.*



황금돼지해 2019년 보광절(6월 19일 왼쪽 사진)과 성탄절(8월 12일) 예배시 합창단에 내린 감로이슬성신(임수빈 촬영)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사 피의 위력

모든 성공담에는 항상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말한다. 사회 저명인사나 성공자들이 빠지지 않고 한결 같이 회상하는 말이다. 자고로 사람의 능력이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 속에 내재된 힘과 능력을 끄집내어 발현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자신의 존재를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인간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느 만큼의 힘이 있는지 알아야 써먹을 수 있는 법이다.

수천 년 전 노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남이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보다 현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남을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말처럼 자신을 이겨내는 일이란 결코 쉽지 않다. 좋고 편할 때는 스스럼없이 휘든 행할 수 있지만, 하기 싫은 일을 하거나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것을 해야만 한다. 모든 위대한 업적과 성공 뒤

에는 반드시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을 극복하고 목적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낱씨가 무더운 여름에 밖에서 일(야구 마라톤 축구 골프)을 해야 하고, 겨울에 추울 때도 해야만 하고, 남이 시키는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일 등 능력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을 이겨야만 한다. 만약 힘들다고 안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낱씨가 어떻다고 안 하고 하면 아무리 많은 능력과 힘이 있어도 점점 그 능력과 힘이 축소되고 상실되게 마련이다. 바로 그 사람은 무능력자로 실패자로 전락되고 마는 것이다. 세상에 존재한 일이란 못할 것이 없다. 옛말에 "정신일도 하사불성(精神一到何事不成)"이란 말이 왜 나왔겠는가를 되새겨보라.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가?

요즘 사람들은 참고 견디는 힘이 없다고 한다. 성공과 출세를 위해 그 열정과 의지가 끓어오르다가도 조그마한 난관과 시험이 닥치면 금방 꺾이고 만다. 그래서 성공자와 출세자가 적은



마음만 통일되면 초능력이 나온다. 정미란 선수가 용상에서 세계신기록 수립할 때의 사진

까닭이다. 하물며 이 불로불사의 길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천대를 한도 끝도 없이 감내하며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세상 말에도 '마음먹은 대로 되어진다'라는 말이 있다. 한 가지 일에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면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 입에 쓰면 금세 뱉어버리듯이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면 쉽게 포기하고 만다. 그래서 힘이 안 쌓이고, 능력이 배양되지 못하는 것이다.

누구나 세상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도전한다면,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면 성공하게 된다"는 진리와의 같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진정 기적은 한마음, 즉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하나되었을 때 발현된다. 마치 뜰보기로 써 빛의 초점을 한 곳에 집중해야만 어떤 물질을 태울 수 있듯이 말이다. 한마음, 그것은 빛이 고도로 집중된 레이저 광선과 같이 위대한 힘(念力)을 내뿜는다. 만약에 사람 몸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일에 한마음으로 힘을

쏟는다면 어떻게 될까? 먼저 불로불사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하고, 변하지 않는 확신을 가져야 하고, 불굴의 투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되고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람의 능력과 힘을 과연 어디에 쏟아야 할까?

흔히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를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과 발견은 "사람 몸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일을 길을 찾는 길"이다. 인류가 지금까지 존재한 이래 이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집중하여 공부하고 연구해 온 지난한 역사의 발자취임엔 틀림없다.

승리제단에선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불로불사학(不老不死學)을 수학하고 수행하고 연구하고 전파하는 일을 여인 40여년이라는 세월을 쏟은 필박과 조롱 속에서 꿋꿋하게 지탱해 오고 있다. 변하지 않는 한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로 세상은 놀라움만인 인간의 수명연장이 급진장해 왔다.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힘차게 부르짖고 있다. 과거 70세만

살아도 장수한다는 말은 이전 우스운 얘기가 되어버렸다. 갓 70세 평균수명으로 알고 살던 시대에 불로불사를 주장했다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사기로 들렸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100세를 넘어, 미래엔 죽지 않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100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또 똑같이 불로불사를 주장하던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미쳤다고 볼 것이다. 그 당시 70세 시대를 살던 시대에 불로불사를 주장했던 사람들을 미쳤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젠 시대에 뒤처지고 남이 다 성공한 다음에 따라가는 일을 할 수는 있으나, 한 번뿐인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정말 어리석은 노릇이다. 한 번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무위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살아 있을 때 충분히 자신의 능력과 힘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능력과 힘을 어디에 쏟아야 가장 위대한 성공과 업적을 이룰 수 있는지 현명한 각자의 판단이 요청된다.*

김주호 기자